



**헌법소송론**

성낙인 외 공저

1987년 헌법에 따라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개소된 이래 벌써 4반세기를 넘어섰다. 헌법재판소가 개소될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과연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들 반신반의하는 상황이었으나, 현재의 헌법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특히 지난 권위주의 시절에 쌓여 있던 수많은 법상 적폐들이 헌법재판을 통하여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 탄핵사건이나 수도이전법률의 위헌 결정 등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호불호를 떠나서 국민의 가슴 속에 최고의 사법적 판단기관임을 각인시켜 놓았다.



[법문사 간/18절판/양장/432면/30,000원]

**헌법판례정신**

임지봉 저

1988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구성된 이후 수많은 헌법재판소 판례들이 축적되어 오고 있다. 기본권론은 물론 통치구조에 관해서도 중요한 판례들이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많은 판례들을 일거에 모두 공부할 수는 없다. 저자는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영향을 미친 판례, 사회적 통합에 공헌한 판례, 이론적·학술적 연구에 기초를 제공한 판례 등을 선정하여 판례공부를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박영사 간/4·6배판/양장/624면/36,000원]

**행정법(상) 제11판**

박근성 저

이번의 개정은 지금까지의 개정 중 가장 대폭적인 개정이 되었고, 전면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 앞으로 이 책의 성격을 행정법학술서 내지 행정법전문서로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지금까지 저자는 우리 행정법에 흠결이 있는 부분을 채우고, 행정법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책을 출간하고 개정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책의 정교함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독자재현의 격려와 질책을 기대한다.



[박영사 간/크라운판/양장/1316면/53,000원]

## 판례해설 민사소송법

이시윤 · 조관행 · 이원석 공저

민사소송법의 초학자들이 교과서와 함께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민사소송법의 이론과 판례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자들이 손쉽게 관련 판례를 찾아 사건해결에 도움을 받는다면 저자들로서는 이 책을 준비한 소임을 다한 것이 될 것이다. 저자들이 바쁜 업무를 겸하면서 이 책을 준비하여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독자들의 기탄없는 지적과 비판을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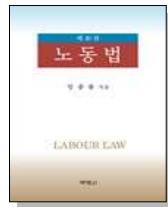


[박영사 간/크라운판/양장/946면/42,000원]

## 노동법(제10판)

임종률 저

제9판을 출간한 지 1년 사이에 적지 않은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노동법의 이해와 연구에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하여는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개정 법령을 소개하고, 판례와 관련하여 최근 수년 동안 노동판례의 미세한, 때로는 중요한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 감지하고 싶었다. 제10판에서는 '노동판례 리뷰'에 실린 판례를 가급적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다. 아울러 이철수 외 4인의 '로스쿨 노동법'에 수록된 주제적 판례는 빠짐없이 소개했다. 이러한 작업에서 특히 성균관대 김홍영 교수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박영사 간/크라운판/양장/704면/43,000원]

## 민법강의

송덕수 저

이 책은 판이 거듭되어 이제 내용면에서 크게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충실해졌다고 생각된다. 작년(2011년)에는 민법전이 두 번이나 개정되었다. 그 하나(2011. 3. 7. 개정)는 이른바 성년후견제에 관한 대폭적인 개정이고, 다른 하나(2011. 5. 19. 개정)는 친권제도에 관한 아주 적은 개정이다. 그런데 이들 개정법률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래서 이번 판에서는 그 주요내용만을 개괄적으로 조금 소개하기로 하였다. 이 책 개정판의 내용을 크게 변화시킨 것은 작년에 있는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기인한다. 아울러 판례를 최신의 것까지 빠짐없이 기술하여 새 판으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박영사 간/4·6배판/양장/2128면/65,000원]

## 범죄학

이창한 외 공저

본 범죄학 수험도서는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저자들은 실제 경비지도사 범죄학 문제를 출제하면서 수험생과 같이 출제범위에 적합한 교재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 저자들은 범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정리해 두었던 원고들을 모았다. 수험도서에 맞게 핵심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출제경향이 높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자 했다.

[박영사 간/4·6배판/반양장/308면/23,000원]



## 분재유형별 민사법

전병서 저

요건사실을 중심으로 실체법과 절차법의 통합 민사법 교재를 의도한 본서가 새로운 법조인양성체제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로스쿨 학생에게 소기의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본서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뿐만 아니라 법학 분야 관련 각종 시험의 수험생, 나아가 신진 법률사무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는 저자에게 분에 넘치는 의외의 기쁨으로 다가왔다. 앞으로도 실체법과 절차법의 연결성을 부각하여 본서를 개정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

[법문사 간/18절판/양장/976면/5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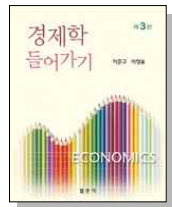


## 경제학 들어가기

이준구, 이창용 공저

이번 개정에서 역점을 둔 또 다른 사항은 현실의 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풍부한 읽을거리를 준비하는 일이었다. 모든 경제이론이 현실에 뿌리를 박고 있지만, 이론과 현실 사이의 고리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을 공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학 공부가 지루하고 따분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읽을거리를 한층 더 보강하는 데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법문사 간/변형국배판/양장/720면/31,000원]



## 한국 정부관료제

박천우 저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편에서는 정부관료제 연구의 전반적 흐름과 정부관료제에 관한 일반이론을 소개하였다. 제2편에서는 한국 정부관료제 내부의 인적 구성, 구성원 간 상호관계, 행정문화 등을 다루었다. 제3편에서는 공조직으로서의 한국 정부관료제의 내적 특성과 장, 단점, 생산성, 조직개편 등을 검토하였다. 제4편에서는 한국 정부관료제를 정책과정상의 주요 주체로 간주하여 그 활동 양상을 다각적으로 살폈다. 제5편에서는 한국 정부관료제가 정책과정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이 민주주의에 부합되는지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법문사 간/4.6배판/양장/664면/31,000원]



## 백두산(사진&에세이)

김영진 저

사진으로 보는 백두산 가이드이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백두산의 설화, 폭포와 봉우리의 이름에 얽힌 사연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빼곡하다. 중국 쪽이 아니라 북한 쪽 내부에서 본 백두의 사계, 천연호수 삼지연, 하늘이 만든 못 달문담, 독수리 부리를 닮은 천문봉, 앞으로 있는 호랑이 와호봉 등 명승지가 시와 사진으로 장관이다. 백두산 전문 사진작가 이정수씨 등의 작품 50여점이 수록되어 있다. 김 시인은 “이 황홀한 비경은 창조주만이 연출할 수 있는 빼어난 작품”이라고 했다.

[민음사 간/신국판/반양장/257면/16,000원]

